

여수 진남상가, 옛 활기 되찾았다



여수 진남상가가 이순신장군을 품은 'HERO STREET'로 변신하며 옛 활기를 되찾고 있다. 상가 내 새로 만들어진 폰트조형물, 벽화센터, 휴식공간, 야간조명 등은 젊은이들을 손짓하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진남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착수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상권이동 등에 따라 침체를 겪고 있는 진남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5억3000만 원을 투입해 세 브랜드를 개발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했다. 시와 공간,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는 젊은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인근 진남관과 이순신장

골목형시장 육성 마무리단계...5억여원 투입
이순신 장군 'HERO STREET' 브랜드 탄생
젊은층 타깃 폰트조형물·벽화·야경 등 조성

군을 주제로 'HERO STREET'라는 상가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상가 일원에는 방문객이 옆에 서면 글씨가 완성되는 폰트조형물, 사진 찍기 좋은 벽화센터, 특색 있는 휴식공간, 500m에 이르는 야간 경관조명 등도 조성됐다. 커뮤니티 공간, 놀이방, 상인회 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서 방문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패션쇼와 프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달라진 진남상가의 모습을 홍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됐던 진남상가가 젊은 상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며 "인근 진남관과 이순신광장 등과 함께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상인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단돈 100원이면 이용 가능 진도군 '100원 택시' 인기

진도지역 오지마을 교통 취약 주민들의 발이 되어 온 '100원 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00원 택시는 작년 한해 동안 15,598회를 운행, 19,070명의 주민들이 이용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100원만 받고 일정 거리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100원 택시는 시골 노인들에게 택시 요금을 100원만 받아 붙여진 이름으로 세대당 한달에 16번씩 이용이 가능하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를 이동하거나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갈 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진도지역 벽지마을에 주민들

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감을 줄이고 취약한 농어촌 택시업계 활성화를 유도해 '효행'을 받고 있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화만 하면 택시가 집 앞까지 찾아오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웃들과 함께 병원이나 시장·목욕 나들이가 편하다"며 "100원 택시가 노인들 생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교통담당 관계자는 "100원 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시로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에는 6개면 14개 마을 91세대가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내나라 여행박람회 관광무안 홍보 마케팅 추진

연꽃축제·황토갯벌축제·농특산물 등 홍보

무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관광객들에게 무안의 대표축제를 비롯한 관광지 홍보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 나라, 인생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내외 관

광 유관기관, 지자체, 여행사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해 총 500여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박람회에서 무안군은 연이·근이 마스코트 인형을 배치해 여행지도와 관광 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무안연꽃축제', '황토갯벌축제'와 새롭게 태어난 무안황토갯벌랜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황토랑쌀 양파즙, 지주식 들깻 등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

공해 관광객들에게 무안군 농특산물의 우수함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무안군에 대한 쿼츠 맞춤형 무안을 일리고, 연이·근이 포토 이벤트, 개인 SNS를 이용한 축제 홍보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무안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이벤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관광 무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무안의 명소를 방문하여 무안의 별미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흥



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체감형 인구 늘리기' 시책 개발 앞장선다

인구 늘리기 민간협의체, 현장 목소리 청취



완도군은 지난 22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상반기 민간협의체 회의를 갖고 체감형 인구 늘리기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구늘리기

민간협의체는 다자녀, 귀농·귀어, 어린이집, 다문화 여성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이 제안한 14건의 아이디어는 '2018년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과정을 위원들에게 공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민간협의체 회의는 인구변동현황, 제안 추진상황 중점 추진과제 등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인구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지자체마다 인구감소 대책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행정에서는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많이 시행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A위원은 "저소득층은 출산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다섯째를 낳아 기르고 있는 본인은 출산장려금 외에 받고 있는 게 별로 없다. 일반가정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식 완도부군수는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귀촌인 애로사항 등은 조례를 제·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인구정책 개발 등 다방면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농업인대학 수강생 모집

친환경유기농업 50명·농산물가공 50명...내달 9일까지

장흥군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갈 인재양성을 위해 오는 3월 9일까지 2018년 농업인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강생은 농업인대학 1과정 친환경 유기농업 50명, 농업아카데미 1과정 농산물가공 50명 합해 모두 100명을 모집한다.

2018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는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진다.

농업전문기술은 물론 마케팅과 관련 법률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 교육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 100시간 동안 실시된다.

신청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농업교육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입학원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직접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장흥=김홍필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